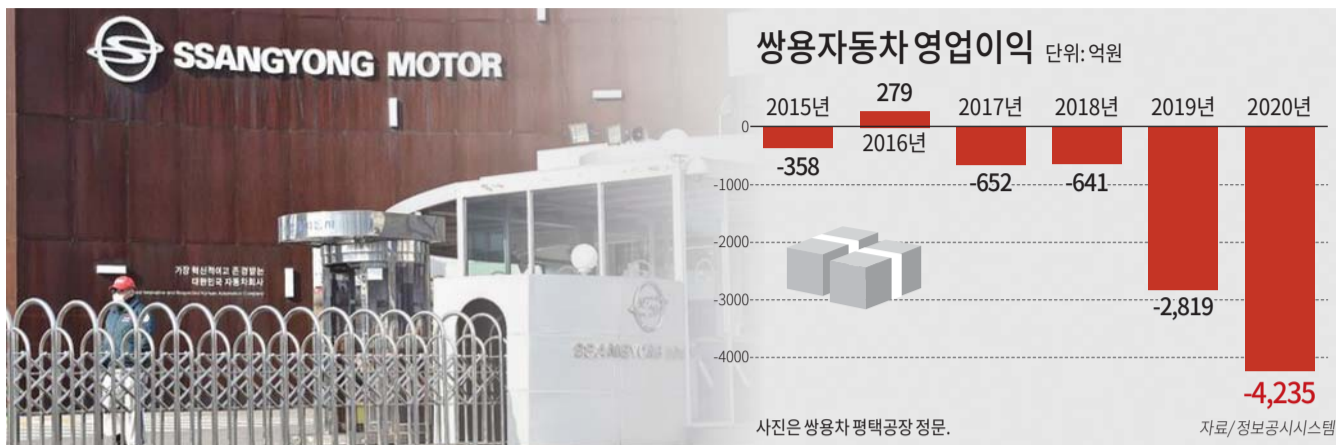


쌍용, 마지막 희망 'P플랜'... 산은 유동성 지원 '최대변수'

〈단기 법정관리〉

이달 HAAH오토모티브와 계약
단기 법정관리 P플랜 가동키로
유동부채 보유 외국계 금융기관
'조건미달'에 감사 거절 가능성
산은, 회생계획안 긍정 검토 입장



쌍용차가 내달 HAAH오토모티브와 계약을 맺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가동한다. 다만 P플랜 실행을 위해선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돌고 돌아 산업은행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는 다음 달 초 HAAH오토모티브와 구체적인 인수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P플랜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P플랜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는 절차와 달리, 채무자가 부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허락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보다 회생에 걸릴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계획안에는 현재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지분율(75%)을 감자하고 HAAH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2억 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신규투자하는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HAAH가 중동계와 미국계 투자자로부터 2억 5000만달러를 투자받아 쌍용차에 투자

하게 되면 HAAH는 쌍용차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P플랜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쌍용차의 유동부채 가운데 60% 가량은 상거래 채권이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계 중소부품 협력사와 외국계 은행들이 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쌍용차가 회생절차 신청을 한 지난해 12월 보그워너오장(T/C 어셈블

리),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콤비미터) 등 외국계 부품사는 부품공급을 거부한 바 있다. 외국계 은행들도 과거 마힌드라가 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감사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회생에는 산업은행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의 경우 주채권단일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423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상태로 전년 대비 적자규모가 50.2%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줄었다. 자본총계는 -62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108.3%다.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와 HAAH 측에서 구체적인 자금지원안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회사 정상화 가능성, 쌍용차 노조 입장 등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쌍용차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쌍용차 발행 어음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북적이는 동묘 벼룩시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

거리두기 2.5단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정세균 총리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5인 이상 모임금지, 9시 영업제한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 주 IM선교회 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물론, 5

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2주간 유지된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도 다음 달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설명

했다. 이어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약처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범부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차질없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이번 주부터 진행될 모의훈련, 예방연습 등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게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효과 검증할 것"

허가심사 첫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이달 중 일부공급, 다음주 허가 목표
국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첫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2월 1일 발표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자문만 거쳤다면, 코로나19 관련 약물은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회의는 그 첫번째 단계다. 이번 회의 결과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고령층 사용 가능 여부다. 정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은 다음달 중 150만명분이 국내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월 둘째 주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월 의료진부터 시작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세부터 65세 미만에만 접종을 권고했다. 유럽 의약품청(EMA)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층에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 절차를 통해 65세 고령층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되거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31일 개최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등 3중 자문회의를 거쳐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ISA 누적 수익률 평균 22.48% '사상최대' 경신

금투협, 지난해 12월 말 2.75%p ↑
지난해 12월 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수익률이 평균 22.48%로 집계돼 전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25개사에서 낸 출시 3개월 이상 206개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평균 22.48%로 11월 말(19.73%)보다 2.75% 포인트 상승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계증시가 백신 개발 및 접종 개시, 미국 추가부양책 가결 등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전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 상품 누적 수익률이 40.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위험' 31.51%, '중위험' 19.61%, '저

위험' 11.57%, '초저위험' 7.27% 순이었다.

〈업권 간 기간별/MP별 수익률 현황〉

구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합계		
							MP개수 (단위:개)	
MP개수 (단위:개)	증권	13	28	31	36	20	128	
	은행	7	21	23	20	7	78	
	합계	20	49	54	56	27	206	
수익률 (단위:%)	누적	전체	7.27	11.57	19.61	31.51	40.58	22.48
		증권	7.38	12.62	21.08	33.93	44.34	25.09
	은행	7.06	10.16	17.62	27.17	29.83	18.21	
	1년	증권	1.65	3.31	7.95	13.60	18.25	9.42
		은행	1.29	3.12	7.16	10.61	13.45	6.99
	6개월	증권	0.71	3.92	9.05	15.39	18.55	10.35
은행		0.37	3.23	8.25	12.49	16.95	8.06	

/자료=금융투자협회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30.32%로 1위로 집계됐으며, 각 MP중에서는 키움증권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누적수익률 93.26%로 전체 수익률 1위에 올랐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